

땅을 알고 터를 잡자

김 호 년

〈전 한국일보기자·「한국의 명당」 저자〉

인간은 그동안 자연의 위협을 많이 정복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서 전통적인 지혜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풍수지리는 우리 선대들이 남긴 생활의 고급지혜다.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설을 삶의 지혜로서 지금의 과학만큼 믿고 신봉해왔다. 우리의 전통문화, 특히 민중의 생활양식은 풍수사상과 얽히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근래에 이르러 한때 토속신앙도 무너지고 풍수설은 미신으로 격하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건축, 역사, 환경, 민속학,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수지리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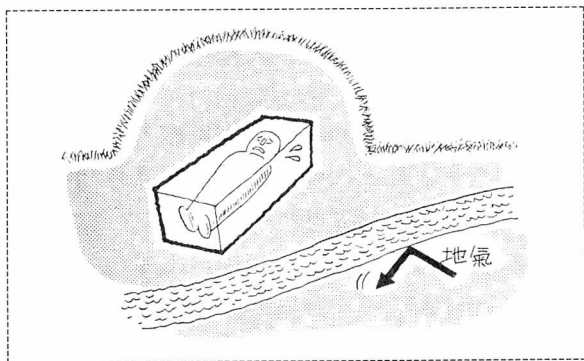
풍수지리의 어제 오늘 내일을 이야기 식으로 재미있게 풀이한 저서 「땅을 알고 터를 잡자」(김호년 저)를 몇차례로 나누어 신는다.

(편집자 주)

선조들의 뿌리깊은 신앙-풍수지리



지하수맥 흐르는 곳은 무조건 피해라



풍수지리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4가지가 있다. 산, 물, 방위,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산은 정기의 원천인 백두산으로부터 끊임없는 정기를 받을 수 있게 그 맥을 대고 있어야 좋다. 이처럼 산을 보는 법을 간룡법(看龍法)이라고 하는데 풍수지리에서는 산을 용(龍)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에서는 풍수의 모든 원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난 것이 산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세의 좋고 나쁨은 산맥의 흐름을 보고 결정한다. 즉 백두산으로부터 혈장(터자리)까지의 맥을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간룡법에 따라 위치를 정하는 것을 장풍법(藏風法)이라고 부른다. 이때 사람이 살 집터나, 묘 자리로 쓸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산사람은 움직여야 하므로 넓어야 명당이고,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자리가 좁아도 무방하다. 산수에 둘러싸인 명당 가운데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야 땅의 생기인 지기(地氣)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정혈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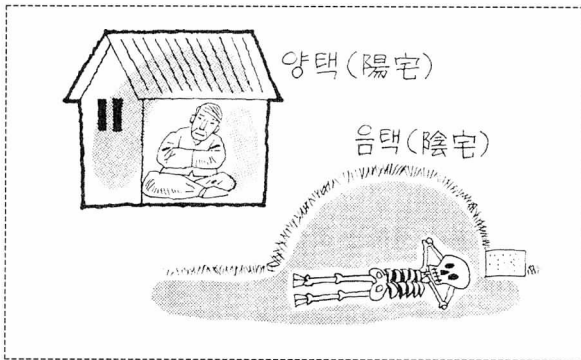
어떤 경우이든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 곳을 피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왜냐하면 그 땅 위에선 지기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은 물론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기계까지도 수명을 다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하수맥의 깊이와 양과 흐름을 찾는 일은 풍수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도 막대기나 추를 이용하여 수맥을 찾는 일이 많았다.

프랑스에서는 라디에스테지(radiesthésie)라는 막대기를 사용했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다우징 로드(dowsing rod)라는 추를 이용했다. 동물들도 지하의 수맥을 가려내는 천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고양이가 도망가는 집은 흉가가 된다는 속설도 고양이는 특히 습기에 민감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회남자병략훈(淮南子兵略訓)』에 ‘개미집 여섯 자 밑에는 지하수가 있다’는 기록도 근거가 있다. 개미는 물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물이 지표가 아니라 반드시 지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뼈, 화장하면 후환 없다



풍수지리설은 크게 죽은 사람들의 집, 즉 무덤을 다루는 음택(陰宅)과 산사람들의 집을 다루는 양택(陽宅)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는 양택보다

는 음택에 더 관심이 많아 음택이 더 발전했지만 이웃 일본은 음택보다는 양택에 치중해 양택을 '가상(家想)의 과학'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을 보면 민족의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 민족의 뿌리에 해당하는 신화를 보면 우리는 호랑이와 곰이 굴 속에서 사람으로 탄생했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은 산에서 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최초의 인간이 산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민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산, 즉 땅에 묻는다. 그런데 일본처럼 물에 떠내려 온 복숭아에서 그들의 조상이 태어났다고 믿는 신화를 가진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고향인 물속으로 보낸다. 즉 수장(水葬)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땅에다 묻는 토장(土葬)을 하게 된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조상탓임에 틀림없다. 시신을 땅에 묻지 않았다면 풍수지리설의 음택론은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복잡하게 발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묘 쓰고 3년 안에 집안에 불상사가 생기면 모두가 무덤 탓으로 돌리던 시대도 있었다.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어서 화장(火葬)을 해버리면 자손들에게 후환이 없다고 자위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화장을 하면 후손들에게 후환이 없고 매장 하면 길흉화복이 등장, 복잡해진다는 공식을 얻을 수 있다. 이 공식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 다 귀신 또는 영혼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영혼이 화장한다고 없어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매장한 시신도 영혼 또는 귀신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풍수지리설 음택론에서도 근본 원리는 영혼의 얘기가 아니라 뼈의 숭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뼈를 어떻게 잘 땅 속에 보관하느냐 하는 방법론인 셈이다. 풍수지리설 음택론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뼈에 얽혀 있기 때문에 시신 중에서도 육(肉)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빨리 육탈(肉脫)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골이 좋은 지기 받아야 후손이 잘된다



풍수지리설 음택론의 기본 정신이 왜 시신의 육(肉)은 도외시키고 뼈(骨)만을 중요시하는가?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특히 인간은 땅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풍수지리설이다. 땅의 지기(地氣)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향, 즉 천기(天氣)도 받는다고 믿는다.

천기는 뒤로 미루더라도 모든 만물이 지기를 받아 살아가는데 살아 있는 사람은 천기와 지기를 받아 활동하기 때문에 받은 지기를 전부 소모하고 말지만, 땅 속의 유골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땅의 지기를 받으면 저장이 되고 그 기가 넘치면 어디론가 전해져야 하는데 흐르는 곳이란 바로 같은 기, 즉 동기(同氣)에 전해진다는 것이다. 동기란 말할 것도 없이 후손이다. 같은 뼈, 같은 근본인 후손에 그 기가 전해지는데 받은 대로 전한다는 이론이다. 좋은 지기를 받으면 좋은 기를 전하고, 나쁜 지기를 받으면 역시 나쁜 기를 전한다는 것이다.

동기로 땅의 기가 전달된다는 이론을 더러는 공명관계로 얘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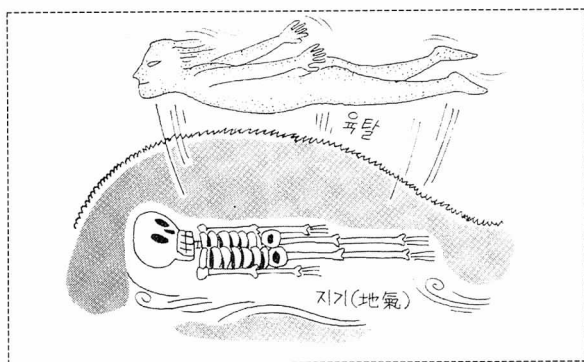
옛날 중국의 어느 명찰(寺)에서 종을 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는 얘기가 있다. 괴이한 일이 벌어지자 모두들 놀랐는데 이 절의 고승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인 다음 어느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는가를 알아보라고 일렀다는 것이다.

며칠 후 고승이 말한 대로 그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음을 확인한 대중들은 고승의 신기한 얘기에 더욱 놀라 연유를 물어보니 그 절의 종은 그 지방의 광산에서 캐낸 쇠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닌가.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자 아직도 그 산에 묻힌 쇠가 흔들렸을 것이고, 그 쇠가 울림으로 해서 그 쇠의 동기인 절의 종도 따라 흔들려 소리를 냈다는 설명이다.

조상의 유골이 좋은 기를 받으면 후손이 좋게 되지만 나쁜 기를 받으면 후손도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 바로 음택론의 기본이다.

이것은 하나의 신앙일 수도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게 일어난다.

고인돌시대부터 시작된 ‘뼈’ 숭배사상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지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시신의 뼈를 중요시했을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어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로 저승살이를 계속한다고 믿어왔다. 신라시대 행해졌던 순장 풍속이 바로 이런 계생(繼生) 관념을 말해 준다.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죽지만 저 세상으로 가서 다시 태어나 계속 다른 삶을 영위한다고 믿었기에 평소에 쓰인 생활용구는 물론 아내와 하인들까지 함께 묻는 순장 풍습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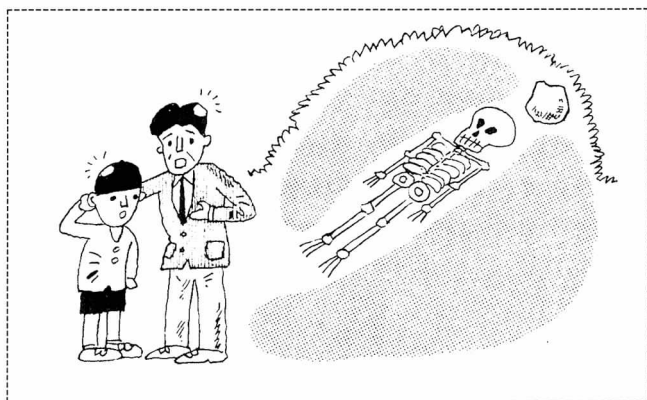
이런 계생 관념은 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재생의 근본이자 근거는 바로 뼈라고 생각한 것이다. 요즈음에도 ‘뼈대 있는 집안’을 들먹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사상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뼈를 중요시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사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지석묘(支石墓), 고인돌의 경우도 뼈를 묻어 둔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 고인돌을 발굴·조사했을 때 뼈가 묻혀 있는 석실(石室)이 작아서 어린이 무덤이라고 추정했었다. 그러나 그 속의 뼈가 더러는 성인의 것도 있고 또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구의 유골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육탈시킨 뒤 뼈만을 이곳에 다시 묻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고인돌 무덤은 부부 또는 가까운 혈연관계 집단의 공동묘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 전해내려오는 초분(草墳)이라는 장법(葬法)도 뼈를 숭상하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어진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초분에서 육탈을 시킨 뒤 뼈만을 다시 묻는 것이다. 이때 처음 초분은 가장(假葬)이라 하고 뒤에 제대로 묻는 것을 본장(本葬)이라고 한다.

백제 무녕왕릉의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지석(誌石)에 따르면 죽은 날짜와 무덤을 쓴 날짜 사이가 만 2년 3개월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초분을 거쳐 본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도 이와 유사하다. 기록에 따르면 사망한 해는 서기 412년인데 산에 묻은 것은 414년으로 되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2년 동안을 육탈 기간으로 추정한다. 풍수지리설의 근본정신 중의 하나는 땅의 영기(靈氣)

를 받은 것은 육탈된 뼈뿐이라고 믿는 것이다. 묘를 쓴 지 3, 4년 내에 이장하는 풍속이 얼마 전까지 행해져 온 것도 바로 시신의 육탈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색유전, 수원 백씨 흰점박이 수수께끼



풍수지리설을 얘기하다 보면 흔히들 그것을 믿느냐고 묻는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신앙을 갖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요, 믿지않는 사람에게는 믿을 것이 없는 것이다.

묘를 잘 쓰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못 쓰면 질병을 얻거나 망한다는 얘기를 믿느냐고 묻는 것은 그 물음 속에 과학적이나 아니냐 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것이다. 풍수의 길흉화복에 관해서는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 증명할 수만 있다면 과학이 되는 것이다.

옛날의 미신이 현재에 와서 과학이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미신이란 그 시대에 이해받지 못한 것일 뿐 과학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의 풍수지리는 지금까지는 경험의 반복이다. 이 경험들이 바로 같은 조건이었을 때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면 통계적인 과학이 될 수도 있다.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안중리에 사는 수원 백씨(水原白氏)가는 특유한 유전으로 후손들이 고민하고 있었다.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머리 위에 흰머리가 점처럼 있기 때문이었다.그런데 17년 전 이 지역에 대단위 농업개발공사가 있을 때 야산을 계단식으로 개답(開畓)하게 됐다. 이때 백씨의 선산도 개간지역 내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장하기에 이르렀다.

파묘를 하고 보니 시신의 머리 뒤쪽부위가 닿는 부분에 흰 차돌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옛날 뿔자리를 잡아 광증을 팔 때 머리쪽 부위에 하얀 차돌이 있었는데 그 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다 파내지 못하고 그냥 다듬어서 안장했던 것이다.

후손들은 시신의 머리에 하얀 돌이 박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자기들의 머리 뒤통수에 박힌 흰점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직감했다. 물론 묘를 옮긴 뒤부터는 후손 중에 흰점박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흰점박이는 '유전'이라는 과학의 이름으로 풀이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것을 과학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